

종합·해설

오늘 민주 원내대표 경선 ‘朴心’이 변수

유선호·강봉균·김진표 판세 ‘오리무중’ 孫대표 중립 ... 박지원 지지후보 밝힐듯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을 하루 앞두고 후보자로 나선 유선호·강봉균·김진표(기호 순) 의원은 12일 막바지 부동표를 잡기 위해 총력을 펼쳤다. 계파별 표심이 집중되지 않아 막판까지 오리무중의 판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내 유력인사들의 의중, 한나라당 발 쏘신 바람과 함께 이념 노선 등이 승부를 가를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김근태 고문계인 ‘민평련’ 소속 의원들과 조찬을 함께했고, 박지원 원내대표가 주재하고 위정척회의에도 나가 지도부의 눈도를 찍었다. 오후에는 의원모임인 친노 및 486이 주축인 진보개혁모임에

대표와 박 원내대표의 의중이 반영되는 표는 각각 25표와 10표 안팎인 것으로 후보들은 보고 있다.

에초 ‘손심’은 원내대표 경선의 최대 변수로 예상됐지만 손 대표가 개인하지 않기로 하면서 측근들의 표도 갈리고 있다. 손 대표계의 우계창 의원은 “손 대표는 중립이지만 순화규계 사이에는 이런저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강 의원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김진표 의원을 돕고 있는 조정식의 의원은 “손심”보다는 의원 개개인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손 대표의 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손학용 의원은 “손 대표는 중립을 지키기로 했다”며 “개개인이 후보를 돕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걸 ‘손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박지원 원내대표의 전략적 움직임이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박 원내대표가 차기 당대표도 전을 앞두고 있는 만큼 그의 최종 판

“7월 4일 전당대회...차기 지도부 선출”

한나라 비대위 회의...“계파 초월 쏘신” 한목소리

한나라당은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첫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갖고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오는 7월4일 서울에서 개최키로 했다. 배은희 당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서울 전당대회는 7월4일로 잠정 결정했으며 (이에 앞서) 권역별 전당대회를 할지는 추후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수의 비대위원은 회의에서 한나라당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권역별 전당대회, 당대표-최고위원의 분리 선출 등의 제도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주말의 견문회를 거쳐 오는 16일 회의에서 산하에 3~4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한 뒤 이 같은 문제를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소장파는 계파선거를 막기 위한 장치로 전당원 투표제와 대표·최고위원 분리선출안을 주장하고 있으나 친이계는 이에 부정적이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비대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정의화 위원장을 포함해 13명인 비대위원을 6명 늘려 19명으로 증원했다. 비대위원 가운데 김성식 의원이 빠지는 대신 박보환·박영아·권영진·신지호·황영철·나성린 의원을 추가 선임하고 조영진·홍남기 지역을 대표하는 원외 인사 1명도 포함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비대위원들은 계파를 초월한 실질적 쏘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친이(친이명박)계인 원외출 비대위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친이·친박·소장파라는 계파 갈등을 녹일 수 있는 용광로를 만드는 것이 비대위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신박(친박근혜)계 김성조 위원도 “비대위에서 불협화음이 나면 한나라당의 미래는 없다”며 “계파를 초월해서 한나라당을 국민에게 되돌려주

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외 당협위원장 대표 자격으로 비대위원이 된 정용화 의원은 “당이 계파별로 분열과 내용을 겪고 있어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비대위가 분열을 녹이는 통합의 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비대위가 단순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기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쏘신안을 마련하는 역할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했다.

소장파인 김성동 의원은 “이번 비대위는 한나라당을 제대로 변화시키는 마지막 기회”라며 “IMF 이후 중산층이 붕괴하고 서민의 삶이 파괴해지고 있는데 이런 고통을 어루만지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용화 위원도 “작년 비대위는 전당대회 준비하는 역할에 그쳐 실망스러웠다”며 “그렇다면 저는 사퇴할 생각이다. 실제로 일하는 비대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회의 주재
퇴임을 하루 앞둔 12일 국회에서 마지막 고위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밝게 웃으며 고별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너무합니다’ 부른 박지원

원내대표 고별 회의 “박수칠 때 떠나겠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퇴임을 하루 앞둔 12일 마지막 고별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가요를 덧붙여지게 열창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전병헌 정책위의장, 전현희 원내대변인 등 참석자들은 1년간 원내 전략을 이끈 박 원내대표를 박수로 맞이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웃으면서 “박수칠 때 떠나라는 뜻이냐”며 가수 김수희씨의 대중가요 ‘너무합니다’의 한 소절을 진지하게 불렀다.

하지만 정작 자신도 겸연쩍었던지 곧바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해 장내에 한바탕 웃음을 일으켰다.

그러나 회의가 시작되자 그는 곧장 제1야당 원내사령탑으로 돌아가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해외 출장중이신데 대한민국 장관들이 국무회의를 지각 개최하는 일, 이게 이명박 정부의 현주소”라며 “책임은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5·18 광주민

전·현직 대선출마면 박정희 1위 노무현 2위

전·현직 대통령들이 다시 대선에 나올 경우 지지도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57.5%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소장 민주당 백원우 의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9~10일 99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12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선 재출마시 ‘다시 뽑겠다’는 응답은 박 전 대통령이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47.4%, 김대중 전 대통령이 39.3%, 전두환 전 대통령이 22%의 지지를 기록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16.1%만이 지지의사를 밝혔다. 지지율이 가장 낮은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3.1%에 머물렀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7.9%만이 ‘다시 뽑겠다’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석패율제·완전국민경선제 논란

국회 정치개혁특위 정치관계법 실효성 의문 제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12일 전체회의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대한 실효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민주당을 제외한 소수 야당이 지역주의 완화 차원에서 도입이 논의되는 ‘지역구결합 비례대표제(석패율제)’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선관위를 추궁한 것이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은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하면 적당대표나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비례대표 숫자가 줄어 근본 취지가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권영길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부산에서 한나라당을 지지한 사람이 52%에 불과한데 18석 가운데 17석을 얻었다”며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서는 석패율제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에 이종우 선관위 사무총장은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선거 영역에서의 지역주의가 완화된다”고 반박했다.

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완전국민경선제 민주당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기존 정치인들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기춘 의원은 “야권연대나 야권통합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4월 총선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선거제도에 대한 공청회도 열려 공정성과 편의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훈교 선관위 재외선거기획관은 “현행 제도는 편의성보다 공정성에 비중을 뒀다”며 편의증진 방안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순회접수와 신고기간 확대 ▲공관 외 장소에 투표소 설치 ▲제한적 우편투표 허용 ▲본인확인 신분증 범위 확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 등을 꼽았다.

강경태 신라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부정선거 가능성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한인사회에서 쏘신, 인맥만들기 등 부정적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후보자의 방문 목적·횡수·장소 등을 명확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축銀 피해액 일부보전 논란

여당 적극 검토

여당 일각에서 정부가 부실 저축은행 투자자의 피해액을 일부 보전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소속 정부위원들은 12일 국회에서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고 예금자 피해 구제 방안을 논의했다.

정무위 간사인 이상현 의원 측은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부실한 감독도 예금자 피해를 초래한 한 원인”이라며 “따라서 피해액의 일부라도 정부가 책임을 지고 보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회의에서 대주주 횡령자금과 영업시간 외 불법 인출 자금에 우선적으로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과산배당액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소송 등으로 대주주의 횡령자금을 회수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실제로 얼마나 회수할지 장담할 수 없어 감독부실 책임이 있는 정부가 일정부분을 보전하는 방법이 거론됐다.

공무원 대출

공무원 대출

- ▶ 대 상 : 공무원, 교직원, 군무원
- ▶ 금 액 : 500만원~8,000만원
- ▶ 금 리 : 년 5%~
- 대출과다나 연체로 대출이 어려운 분
-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실 분
- 개인회생, 신용회복 지원대상인 분 가능

직장인 대출

- ▶ 금 액 : 500만원~5,000만원
- ▶ 금 리 : 년 9%~
- ▶ 대 상 : 3개월 이상 근무자 누구나 가능 (신용불량자 제외)

하나 1544-0936
011-705-2230

등록번호: 2011-3430067-25-5-00009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400-13(계수수료료-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
대부중개업 등록기간: 대구광역시 대표자: 백영학
제1금융권이자율: 최저 5.5%~13%(연체금리 18%~22%) 제2금융권이자율: 최저 11.9%~33%(연체금리 22%~44%) 제3금융권이자율: 최저 13.3%~44%(연체금리 44%)

법원 경매

법원경매 법률상담 ☎226-2785 h.p 010-5879-8300

경매주택임대차 상담, 관리신고 배당요구, 경매고충해결
소유권이전, 명도소송, 인도명령, 건물철거, 유체동산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경매신청, 일반임대차

【추천경매 물건】

서구 회정동 상가주택 8호	담양군 금성면 전원주택부지
대지 209㎡ 건물 347㎡ 감정가 3억9천1천 최저가 2억2천	면적 4556㎡ 감정가 1억6천4백 최저가 1억1천5백
담양군 대전면 주택,공장	상무지구 중심상업지역상가
대지 1260㎡ 건물 308㎡ 감정가 2억4천 최저가 1억7천	면적 552㎡ (현내대리 1천만원) 감정가 9억1천4백 최저가 6억4천
화순군 도곡면 숙박시설	상무지구 금호상용아파트 7층
대 1674㎡ 건물 1548㎡ 감정가 8억1천 최저가 3억6천3백	면적 165㎡ 감정가 2억2천7천 최저가 1억8천9백
서구 광천동 이면천세상아파트 4층	서구 벽천동 주택,창고
142㎡ 감정가 3억5천 최저가 2억4천5백	대지 473㎡ 건물 191㎡ (투자가치) 감정가 1억4천2백 최저가 9천9백
광산구 수원지구 신안실크밸리 6층	서구 마곡동 대지 (법정지상권)
105㎡ 감정가 1억8천1백 최저가 1억6천	대지 175㎡ 8미터도로접 감정가 1억6천 최저가 1억1천1백
광산구 수원지구 현진에버빌 5층	광산구 신항동 주택,식당
143㎡ 감정가 2억9천 최저가 2억3백	대지 368㎡ 건물 166㎡ 감정가 2억9천 최저가 1억4천6백
북구 오치동 금호타운 7층	동구 지산동(조대후문) 다가구주택
면적 105㎡ 매매가 1억2천	대지 231㎡ 건물 321㎡ 매매가 3억1천

이외 광주,전남,북에서 진행중인 모든경매물건 의뢰 가능합니다!

명도대행·명도소송·강제집행 NO.1
변호사 김길수법률사무소
☎(062)226-2785 H.P 010-5879-8300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프리모남녀가발

가발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초슬립!!

스킬과 맘이 초극대화하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며 이질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귀하의 품위와 인격을 높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화상 두피함몰등 가발의 모든것 해결함
타사 제품도 신기술로 보원시술 가능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 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기든상가 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 장 이 수 채 011-607-5330

NAVER 주소(이) 대산프리모 검색

최상품을 최저가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50만원

백제대교, 남구주유소, 50m, 대산프리모가발